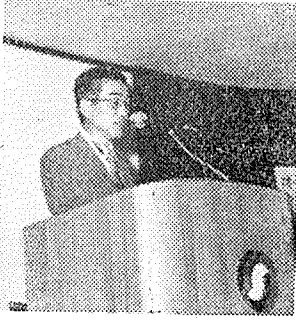


經濟發展에 先導者 使命다하자



國會議員 金世鍊

여러가지 經濟的인 競爭이 불가피한 經濟的跳躍의 새로운 段階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經濟의 持續的인 發展과 成長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여러가지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앞서 영화에서도 보신바와같이 우리나라 自主國防이라는 狀況에서 불행히 특히 政府의 機械工業分野에 育成·發展이라는 어느때보다도 시급한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現代의 國家安保라는 것은 國民經濟의 總體的인 能力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한나라의 自主國防能力은 그나라의 防衛產業의 育成·發展 程度에 따라서 評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防衛產業은 高度의 知識과 技術이 필요하기 때문에 科學技術의 役割은 그 어느때보다도 増大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리에 계신 과학인 여러분께 부과된 使命은 그 職務는 經濟發展의 先導的인 면에서 어느때보다도 중차대 합니다. 또한 여러분에 대한 國民의 期待는 실로 큰 것입니다.

오늘 이 방위산업의 영화를 보고 감회가 크실 것입니다. 大統領께서도 수차례 걸쳐 駐韓美軍 撤收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自主國防態勢를 確立하기 위한 하나의 轉期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自主國防이라는 次元에서도 우리 經濟의 自力·成長 훈련을 더욱 強化하기 위한 4次計劃의 目標은 여러 어려운 여건의 制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克服해서 다시 한번 기필코 達成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나와서 평소에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학·기술자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經濟發展에 큰 寄與를 하시고 계신데 대해서 敬意를 표하는 동시에 國民의 기대에 積極的인 支援과 經濟開發에 先導的인 役割을 해주시기를 衷心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축하의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維政會 政策研究委, 副會長>